

‘합창에 바친 삶’ 장신덕 교수 기린다

예향의 도시 광주에 합창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언제였을까, 광주에서 합창의 봄은 언제 일어났으며 왜 시작됐을까. 이러한 질문에 한 인물이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답한다.



고 장신덕 교수



김승일 교수



메조소프라노 강양은

은 평생을 합창에 바친 고(故) 장신덕 조선대 교수는 광주에 ‘합창 봄’을 일으킨 주역이다. 장 교수는 1958년 ‘광주 KBS합창단’ 창단을 시작으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주축이 된 ‘산향 합창단’, ‘광주MBC 합창단’, ‘광주YWCA합창단’, ‘CBS합창단’을 만들었다. 이후 1969년에는 개인 사비를 털어 조선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민간교향악단인 ‘광주시민교향악단’을 창단했다.

오늘날의 광주시립교향악단과 ‘광주시립합창단’은 장 선생이 1976년 ‘광주시민교향악단’을 모태로 만든 것이다. 각 60명, 40명 인원으로 출범해 현재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장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故 장신덕 교수 추모음악회’가 24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2007년 작고 이후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던 추모 행사는 장 교수의 업적을 기리고 기억하는 ‘장신덕 광주음악상’ 설립을 목적으로 15년만에 마련됐다.

장 교수의 제자들은 광주에 한국화의 허백련 미술상, 서양화의 오지호 미술상, 국악의 임방울 국악상이 있지만 서양 음악상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광주에 각종 합창단을 창립하며 광주의 음악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선구적 역할을 한 장 교수의 공을 기려 ‘장신덕 서양 음악상’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추모행사의 막은 시에 음을 입힌 장 교수 제자들의 작품 연주로 열린다. 윤대근 작곡가의

1958년 ‘광주 KBS합창단’
1969년 시민교향악단 등 창단
‘장신덕 광주음악상’ 설립위해
24일 금호아트홀서 추모음악회

꿈과 사랑’, ‘나 그대를 사랑하리나’와 구희영 작곡가의 ‘그대가 길이 되어’와 ‘사랑은’ 등이 선보여진다. 또 김승일 조선대학교 명예교수가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장 교수에게 직접 지도받았던 동요 ‘운세상 가득’, ‘시골 아이’를 비롯해 총 세곡을 연주한다.

이어 제자 김유정 한국음악협회 광주시지회 10대 회장이 ‘장신덕 음악상’ 제정 추진 호소문을 낭독하고 마지막으로 조선대학교 음악과 동문 솔리스트 30여명이 ‘내 영혼의 바람다어’를 추모 합창으로 펼치며 무대를 마무리한다.

제자인 김승일 조선대학교 명예교수는 중학교 2학년 당시 장 교수를 처음 만난 순간을 떠올리며 ‘끊임없는 음악 공부로 음악 세계의 문을 열어주셨던 분’이라 회상했다. 김 교수의 기억 속 장 교수는 당시 구하기 힘들었던 음악 도서를 매달 구입해 꼼꼼히 읽을 정도로 음악적 호기심이 깊었다. 늘



1976년 10월 30일자 광주일보에 보도된 광주시립교향악단 창단 공연 당시 기사 내용

발전을 추구했고 도전하는 사람이었다. 일본음악 도서 ‘음악지우’를 읽던 장 교수는 일본의 시인 문화 상황을 접하고 광주의 문화 수준을 끌어올려야겠다는 열망을 갖게 된다. 일본의 수준에 뒤처질 수 없다는 의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1958년 ‘광주KBS합창단’을 시작으로 ‘광주시립교향악단’과 ‘광주시립합창단’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1976년 10월 30일자 광주일보에는 장신덕 상임지위자의 창단연주회 기사와 함께 ‘문화예술 본고장 긍지를 살렸다’는 부제와 함께 ‘광주 음악인의 오랜 숙원이던 광주시립교향악단의 기념공연이 1500명의 박수 갈채와 함께 열렸다’는 글이 실려 있다. 문의 010-8604-5446.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설명하고 토론하는 고법 발표회

20일 목요일국악한마당...양신승 명인 ‘진양조 고찰’

초가를 날씨를 축축하게 적시는 판소리 고법 발표회가 열린다.

광주 빛고을국악전수관은 20일 오후 7시 제 718회 목요일국악한마당을 연다.

공연은 양신승 명인의 ‘진양조 고찰’을 통한 판소리 고법 형식으로 진행된다.

양신승 명인은 광주 예술고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광주 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전승교육사, 전라남도국악단 상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소리꾼이 무대에서 판소리 5바탕의 곡을 공연하듯 펼치는 고법 발표회 형식과는 다르게 고법 가락 이론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양신승 명인

행식으로 진행된다. 해설 및 사회에는 김세종 동국대 박사가 참여하며 소리꾼 김현란, 김지연씨가 함께한다.

공연은빛고을국악전수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전석 초대. 문의 062-350-4557.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메타버스 시대 예술 활동

광주시립미술관, 20일 강좌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지맵/Gwangju Media Art Platform)은 미디어아트 아카데미 강좌 ‘뉴미디어아트에서 NFT까지’의 여덟 번째 강의를 진행한다

20일 오후 2시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1층 미디어 라운지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강진교 한국메타버스연구원 광주지회장이 ‘메타버스 시대 예술 창작활동’을 주제로 강연한다.

강화장은 AI, VR, AR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대면 실감 콘텐츠로서의 메타버스, 글로벌형 차세대 R&D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의 메타버스 예술창작활동의 가치 또한 다룰 계획이다. 저서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상이 즐거워지는 스마트폰 활용 비법’이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아미’ 되는 BTS

만행 ‘진’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 신청...멤버들 순차 입대



지난 15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Yet To Come in BUSAN’.

그를 방탄소년단(BTS)이 팀의 만행 진을 시작으로 각자 순서에 따라 입대하겠다는 뜻을 전격 발표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17일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며 “다른 멤버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2년생으로 만 30세인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국위 선양을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중음악계에서는 이에 방탄소년단 대체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방탄소년단이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자체 철회하면서 진은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으로 입대할 전망이다. 이에 입영통지서 발부 시점에 따라 이번 연내에 전투복을 입게 될 가능성도 있다.

방탄소년단은 이를 전인 지난 15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Yet To Come in BUSAN’에서 (현재 접혀있는) 마지막 콘서트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올해 6월에는 방탄소년단 9년 역사를 망라한 앤솔러지(선집) 음반 ‘프루프’(Proof)를 내고서 그룹 활동보다는 솔로 위주로 음악

여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병역의 의무’를 전제로 한 메시지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진은 지난 15일 부산 콘서트에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우리가 일단 잡혀 있는 콘서트는 이게 마지막”이라며 “앞으로 또 언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 감정을 많이 담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은 진을 필두로 한 입대로 당분간 그룹 활동은 ‘잠시 심포’를 찍게 됐다. 다만 진은 멤버 제이홉에 이어 팀에서 두 번째로 싱글을 통한 정식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어 입대 시점은 이 신곡 발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빅히트뮤직은 “당사는 아티스트와 함께 그동안 병역 이행 계획을 구체화해 왔다”며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는 시점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으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 콘서트가 마무리된 지금이 이를 알려드리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와 멤버들은 대략 2025년에는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의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현실점에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 ‘투 쿨 포 스쿨’(2 COOL 4 SKOOL)로 데뷔해 글로벌한 인기를 누리며 K팝 가수 최초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핫 100’ 1위곡과 ‘빌보드 200’ 1위 앨범을 각각 6개씩 배출했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